

이슈

김경문 경질 막전막후

2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2853호

김경문 감독이 NC에 남긴 선물

타자 나성범·선발 이재학 조련 수 많은 선수들 성장 이끈 은인 2016 KS 진출 9구단의 대반란

2011년 9월 6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약 7년. 김경문 전 감독이 NC 다이노스 사령탑으로 함께 한 기간이다.

김 감독은 두산 사령탑 때부터 직설적이고 선 굵은 야구를 했다. 성격도 야구 색깔과 같다. 선수의 장점을 찾아내는 눈은 현장에서 유명하다. NC 감독을 맡아 아직 계약기간도 시작 안 된 시점에서 “나성범(NC가 지명한 연세대 4학년)은 투구 폼이 바뀌었다. 훌륭한 왼손 강속구 투수지만 프로에서는 타자로 더 대성할 것 같다. 입단 하면 타자를 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메이저리그 팀도 주목한 대학 최고 유망주 좌완 투수를 입단도 하기 전에 타자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김경문 다운, 김경문 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무명의 대학선수였던 권희동은 연습경기에서 두려움 없이 프로 투수들의 공에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선택했다. 삼성에서 대주자, 대타 전문에 그쳤던 김종호는 외야수로 송구가 약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지만 “어깨가 강하지 않지만 발이 빠르니 더 빨리 잡으면 된다”며 기회를 줬다. 전형적인 투 피쳐 투수 이재학에게는 과감히 선발, 김태군에게는 전 경기 출전 포수라는 이색 타이틀을 안기며 성장을 이끌었다. 박민우, 원종현, 임창민, 김진성, 모창민 등 수 많은 선수가 김경문 감독을 만나 새로운 선수로 태어났다. 불명예스럽게 유니폼을 벗었던 손민한도 김경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김 감독은 2016년 팀을 한국시리즈로 이끄는 등 단기간에 신생팀 NC를 강팀의 반열에 올렸다. KBO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신생팀 감독이었고 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9구단·10구단 체제 정착에 큰 공헌을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NC 황순현 대표가 창단 감독 김경문을 자르는 법 | 그들이 부르짖던 명예도 존중도 없었다

퇴근길에 갑자기 해임...이게 최선입니까?

연봉 협상 잡음·수준미달 베렛 고집
NC 추락, 황순현 대표도 책임 큰데
사전 교감 없이 7년 애쓰 감독 경질
코치 경험 없는 단장, 감독대행 임명



NC 황순현 대표

NC 다이노스의 황순현(51)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이태일(52) 전 대표에 이어 구단 수장에 올랐다. 김경문(60) 전 감독보다 9세 연하로 등기상 2011년 NC가 야구단 창단을 승인 받은 후 약 1개월 동안 ‘엔씨소프트 야구단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이전까지 야구와 제대로 인연을 맺은 적이 없다.

프로야구의 큰 어른이자 명망 높은 대(大) 감독과 야구와 인연이 없던 새 경영자는 6개월 만에 결별했다. 선택은 인사권자인 황 대표의 결정이었다.

황 대표는 프로야구 37년 역사상 손꼽히는 파격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하룻밤에 했다. 3일 밤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경기가 끝나고 퇴근하던 감독을 만나 해임을 알렸다. 대외적으로는 공로를 인정하고 최고의 예우를 표했지만,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심야에 마산구장 인근 카페에서 이뤄진 일방적 ‘통보’였다.

곧장 황 대표는 프로에서 단 한 경기도 코

치를 맡아 본 적이 없는 유영준 단장을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 유 단장은 고교 지도자 때부터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았지만 최고 야구 엘리트 집단인 1군 선수들과 코치들을 어떻게 이끌지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에서 선수와 코치 경험이 없는 첫 번째 감독 대행이다.

NC 김종문 단장대행은 “감독대행은 항상 여러 오해가 따르는 자리다. 이런 잡음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르기 위한 책임자가 유 전 단장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한 리그 관계자는 “황 대표 취임 이후 창단 때부터 함께 했던 핵심 프런트가 구단을 떠났다. 현장과 불통, 프런트 내부에서도 새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다. 유 대행 낙점은 최고경영자가 코칭스태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문 전 감독은 결국 10위로 추락한 NC의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고 해임됐다.

그러나 NC의 추락에는 프런트, 특히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크다. 올 시즌을 앞두고 NC 선수들은 연봉 협상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투수는 “실무자들도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선수 투자도 과거와 달리 소극적이었다. 구단 내부에서는 “왜 이런 소소한 경비까지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팀에 수년간 헌신한 불펜투수들이 특히 연봉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투수 로건 베렛은 계약을 앞둔 메디컬테스트에서 부상이 발견됐지만 보장 액수를 대폭 삭감하고 계약했다. 김 전 감독은 5월 13일 두판



NC 김경문 감독이 전격 경질됐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지만 NC 프런트의 방식은 지나치게 냉정했다. NC 야구단의 가치인 ‘존중’은 어디로 간 것일까. 스포츠동아DB

후 베렛을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프런트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선발진이 붕괴된 시점으로 빠른 교체가 필요했지만 경영진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 전 감독은 최근 주위에 깊은 고뇌를 수차례 드러냈다. 그러나 자신사퇴 대신 최소한

올 시즌은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며 팀의 궤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심야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경질이었다. NC 야구단이 자랑하는 팀의 핵심 가치인 ‘정의’ ‘명예’ 그리고 ‘존중’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뒤틀린 트레이드’ 책임자가 NC 감독대행

작년 강윤구 받고 넥센에 1억 건네
유영준 전 단장 부임 첫 작품이 썩수

NC는 3일 김경문 감독을 전격 경질한 뒤 유영준 단장에게 감독대행을 맡겼다. 유 대행도 김 전 감독의 경질 직전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만큼 파격적 인사였다. 단장이 감독대행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KBO리그 최초다. 문제는 그가 ‘넥센발 현금 트레이드 논란’의 책임자라는 점이다.

NC는 지난해 3월 넥센에서 강윤구를 받고 김한별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1월 부임한 유영준 당시 단장의 첫 트레이드였다. 유 전 단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충고 야구부 감독을 맡았고, 강윤구는 그의 제자였다. 그는 “(강윤구의) 성격과 가능성을 알고 있다. 환경을 바꾸면 잘되지 않을까”라고 트레이드 배경을 설명했다.

NC는 당시 트레이드 대가로 넥센에 현금 1억원을 건넸지만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뒤틀린 거래’였다. 유 전 단장은 5월 28일



유영준 감독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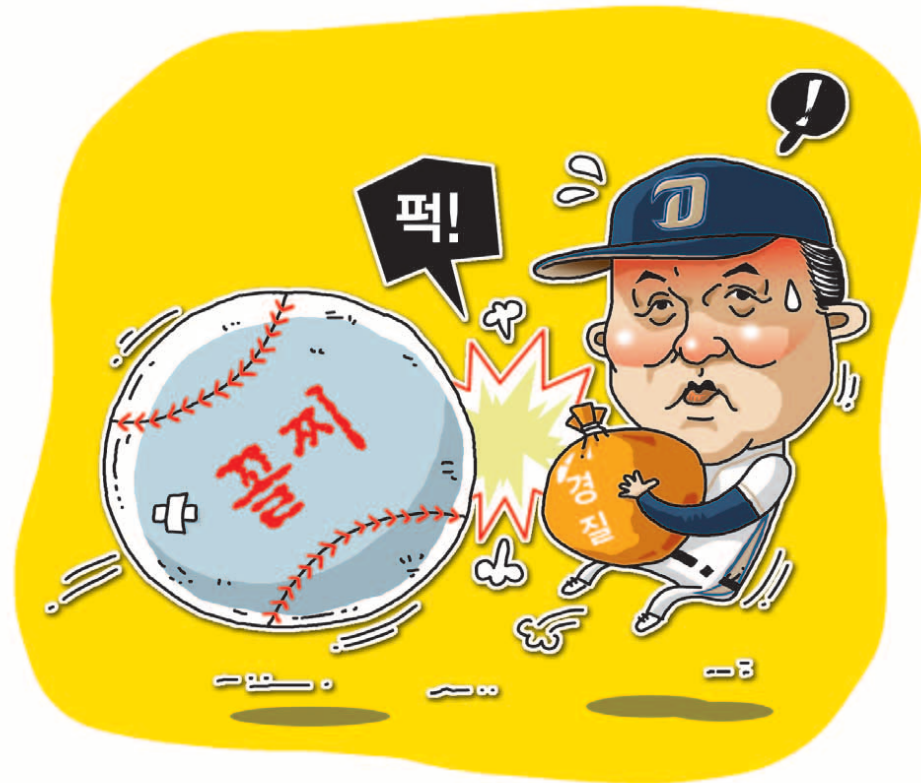
이를 KBO에 뒤통스 알렸다. KBO는 “프로 출범 후 터진 가장 큰 약제”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 책임자인 유 전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감독대행으로 선임됐다.

유 대행의 경력도 논란이다. 그는 프로 출범 이후 세대임에도 실업리그에서만 선수생활을 보냈다. 프로에서 현역이나 코치 경력 없이 곧장 감독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프로에서 8시즌을 뛰었던 넥센 장정석 감독도 부임 당시 코치 경력은 없었다는 이유로 홍역을 치렀다. 장 감독도 “내 생각과 현실은 달랐다”고 어려움을 인정할 정도다. NC는 불명예 트레이드의 책임과 경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 대행에게 덜컥 중책을 맡겼다. 어쩌면 유 대행도 피해자일 수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성적부진엔 장사가 없네

현장권력 밀어낸 프런트권력, 그 미래가 궁금하다

정재우의 오버타임

아무리 프런트야구가 대세라지만
명장의 후임이 프런트 임원이라니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NC는 3일 아침한 시각에 김경문 감독의 사퇴와 유영준 단장의 감독대행 임명을 발표했다. 정규시즌 통산 896승을 거둔 명장의 시즌 도중 전격 하차뿐 아니라 프런트 수장인 단장의 감독대행 취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일은 지금 당장뿐 아니라 훗날 KBO리그를 되돌아볼 때도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다. KBO리그 초창기부터 지속되어 온 프런트와 현장의 힘겨루기 또는 알력이 메

이저리그에서처럼 선불리 되돌리기 힘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프로에서 선수는 고사하고 코치 경력도 없는 프런트 최고위 임원이 현장을 접수한 KBO리그 최초의 사례로는 남을 듯하다.

메이저리그에선 프런트권력이 현장권력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단장(General Manager)과 감독(Manager)을 지칭하는 단어에서도 확인된다. 말 뜻 그대로 단장은 선수단을 포함한 구단 운영을 ‘총괄’한다. 20년 전 등장한 빌리 빈 오클랜드 단장(현 부사장의 성공 이후로는 메이저리그의 프런트야구가 한층 강화됐다.

“지금부터 우리 조직은 상의하달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수수급문제도 우리가 직접 통제

하겠습니다. 그런 원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다. 지금까지 야구팀은 감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디만,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빈 단장의 독특한 구단운영방식과 철학을 지칭하는 ‘마니발’을 소개한 동명의 저서(마니를 루이스 지음·운동구 옮김·한스미디어 펴냄)에 나오는 말이다. 2003년 1월 보스턴 헤럴드에 실린 빈 단장의 인터뷰 중 일부다. 이 언급대로 이제 메이저리그의 감독은 단장이 꾸려준 선수단으로 경기를 치르는 존재일 뿐이다.

풍부한 현장경험보다는 프런트야구를 심층 이해하고 충실히 협조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융통성(프런트와의 소통능력)을 겸비한 젊은 감독이 메이저리그의 대세다. 올 시즌부터

뉴욕 양키스를 이끌고 있는 애런 분 감독이 대표적이다. 코치 경력은 아예 없다. 2009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해설가로만 일했다. 분처럼 올해 보스턴 지휘봉을 잡은 알렉스 코라 감독도 마찬가지다. 현장 지도자 경력이라고는 지난 한해 휴스턴 벤치코치가 전부다.

이제 KBO리그에서도 프런트권력은 현장권력을 능가한다. 2012년 말 넥센이 염경엽 감독(현 SK 단장)을 선임한 뒤로 표면화돼 지금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염 감독은 LG에서 스카우트와 운영팀장을 역임한 경력의 짧은 코치 경력보다 훨씬 강렬한 ‘야구인’이었다. 벼센과 염 감독의 성공에 자극 받은 여타 구단들이 앞 다퉈 프런트야구를 강화했다.

간밤 NC에서 벌어진 김경문 감독의 전격 퇴진과 유영준 단장의 감독대행 선임은 이 같은 흐름에 쐬기를 박은 일대사건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제 외국인선수 영입과 선수단 채우 문제 등을 놓고 더 이상 군말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구단에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감독은 필

요 없을지 모른다. 최소한 당분간은 말이다. ‘전지전능한’ 프런트만 있을 뿐이다.

제야무리 명장이라도 성적이 부진하다면 경질 또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종목을 불문하고 그렇다. 다만 그 자리를 현직 코치도 아닌 프런트 임원이 때우는 일을 선뜻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차원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또는 존중하고 있는지’를 묻는 정서적 차원의 접근이다.

한 분야에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룬 ‘장인(거장)’의 물려난 자리를 프런트로 메운다는 발상은 어쩌 보면 효율성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처럼, 현재진행형의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KBO리그의 다른 구단들처럼 올 시즌 후 또는 수년 후 NC가 거둔 성과를 확인하면 된다. KBO리그에서도 명확해진, 현장권력을 압도하는 프런트권력의 미래가 궁금하다.

전문기자 jace@donga.com

편집 | 인도용 기자 do02@donga.com